

# “인신매매, 내 자녀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FBI, 인신매매 실태 세미나

연방 경찰 (FBI) 아시아 미국 퍼시픽 아일랜드는 지난 2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인신매매의 심각성과 실태를 알리고 예방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일반 대중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사회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온라인 대화의 장 스크립트 (SCRIPT - Summit on Community Resilience, Intervention, Prevention and Training)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 사진=Shutterstock \*관련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췌한 것입니다.

두 시간 동안 걸쳐 진행된 줌 세미나는 일반인에게도 공개되어 참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스크립트 프로그램 디렉터 데브라 워너 범죄 심리학 박사가 사회를 보고 톤 쉐리겔 FBI 스페셜 에이전트, 뉴질랜드 범죄 심리학자 사만사 파텔, 스테파니 파웰 퇴직 LA 경찰국 서전트가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이끌었다.

세미나의 주제는 미국 전역과 국제적으로 만연해 있는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또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FBI가 어떻게 지역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명해 보고,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교육, 커뮤니티 지원을 다방면적인 시각으로 토론해 보는 것이었다.

세미나 토론을 위해 기본적으로 4가지 질문이 제시되었다.

**첫째로, ‘인신매매는 무엇이며 우리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질문이 주어졌다.

LA 지역에서 16년 넘게 현장 근무를 해온 톤 쉐리겔 FBI 스페셜 에이전트는 인신매매를 ‘현대판 노예장사’로 정의했다. 인신매매는 기본적으로 한 인간을 취하여, 팔아 넘기거나 노동을 착취하는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는데, 결국 한 인간을 그의 의지에 상관없이 자유를 억압하고 그의 삶과 미래, 그리고 잠재력까지 착취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노동 착취 면에서 육체적인 노동으로 혹사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상업적, 성적 거래를 강요하는 경우로 이어져 더 심각하게 된다. 인신매매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개인 외에도 그 가족, 개인들이 사는 지역 단위로 피해가 확대되며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게 된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희생자들의 평균 나이는 근래에 점점 낮아져 12세에 이르렀다고 한다. 아직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이들이 인신매매의 표적이 주로 되며, 외국에서 갓 건너와 새로운 환경과 언어에 익숙지 못한 이민자들도 빈번한 표적이 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사만사 파텔은 뉴질랜드에서도 워킹 홀리데이 등으로 일하러 온 젊은이들이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며 지역사회가 경각심과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볼 때 인신매매가 예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테파니 파웰 퇴직 LA 경찰국 서전트는 인신매매의 가해자는 범죄조직이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 아는 사람이 가해자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희생자가 일단 인신매매로 넘어가면 필연적으로 성적 착취를 당하게 되며 매춘을 강요당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상에서 문제가 되는 포르노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이 인신매매의 결과로 강압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많으며,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더 위험한 사건들이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에 스테파니 파웰은 특히 아동 포르노에 대한 위험성을 말하며 아동 포르노를 본다는 것은 아동 학대 및 착취 이미지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톤 쉐리겔 FBI 스페셜 에이전트는 아동이 당하는 성추행은 성적 학대이며 판단력이 부족한 아동이 이러한 행동을 정상적인 것으로 잘못 인지할 경우 사춘기 이후 아동의 성 정체성 및 감수성에 결정적인 피해가 오고 최악의 경우 매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매춘이 포르노로 이어질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매춘업자들은 이를 이용해 24시간 시간 돈을 벌지만 피해자들은 24시간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결과가 된다. 이에 쉐리겔 에이전트는 어린 아동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은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러한 실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물었다.

사만사 파텔은 이에 대해 너무나 빠른 대답일지 모르나 정부나 시스템에 기대기보다 ‘보통 사람들’이 변해야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신매매에 희생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며 편견의 시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쉐리겔 에이전트는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신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 기본적인 단계에서부터 교육이 필요하며 종교계, 정치계, 의료계, 교육계 등 모든 분야에서 교육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주위를 관심있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일이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라고 역설했다.



▲ 사진=Shutterstock

파웰 사전트는 인신매매 혹은 성적 착취의 징후를 알아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중고등학교에서 ‘인신매매 예방 경각심’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는 법안이 제안되었으나 아직도 다듬어야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하며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너무 늦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믿지만 일부에서는 너무 어린 나이의 아동들에게는 무리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동들에게 말해주지 않을

◀ 사진=Shutterstock \*관련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췌한 것입니다.